

# 고환율 직격타 맞은 중소기업에 15조 긴급 수혈

## 중동 피해기업 정책금융에 1조1000억 추가 공급 긴급경영자금 전용트랙 신설... 금리우대 0.2%p ↑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예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예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올해 1분기 말 1530.1원, 6월 말 1549.4원까지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미국 정책금

리 인상 가능성과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예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23조7000억원)의 잔여 지원 여력 13조8000억원에 신규 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예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0.2%p 확대한다. 수은 조달 원가 수준 급리도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감면 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업에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기업 등에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환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무보)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환 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일부 원자재 수입 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예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나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을 준다.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예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 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 시에는 고환율 등 경영예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예로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 1조1000억원도 추가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금융사기 예방·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 전남농협, 7월 한 달간 전남광주 주요 시·군 순회

농협 전남본부는 7월 한 달간 전남광주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캠페인은 지난 2일 광양시지부 앞에서 진행됐다.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 것,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할 것, 대출 실행을 이유로 수수료나 보증료를 먼저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

할 것,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나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등 주요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전남본부는 양파 출하 시기를 맞아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재배농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2일 농협 광양시지부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 'AI+산업기술 실증 포럼' 개최 GICON, 기술사업화 협력 강화

(제)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지역 AI 산업 실증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정을 마련했다.

GICON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호철페오에서 'AI(인공지능)+산업기술 실증 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엔지니어)'의 R&D 기반 실증스튜디오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한국폴리텍V대학, 한국광기술원, GICON,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인진흥원이 공동 개최했다.

'AI가 지역 산업기술 실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식혁신편역 거버넌스 협약식과 지역 AI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 선언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주제별 포럼, AI+산업기술 실증 성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퓨리오사AI의 AI 반도체 및 AI 컴퓨팅 기술 동향, 미시간벤처캐피탈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사례,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의 중국 시장 진출 사례 발표를 통해 AI 실증 기술의 사업화 전략과 글로벌 투자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사례와 AI를 활용한 디자인 활용 방안, 국가 AI 기반 인프라 전략, 기술투자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참여기관들은 AI 실증 우수 사례와 1차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대학, 혁신기관, AI 기업, 국내외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과 기술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AI 기반 산업기술 실증과 기술사업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연계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GICON은 AI·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대학과 혁신기관,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AI 실증과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적극 나섰다.

앞으로도 AI와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GICON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AI 산업의 실증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AI·문화콘텐츠 기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7월 전통주에 '장보고의꿈 비파20' 선정

### 완도 비파·전통 과하주 양조법...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이달의 전통주로 완도 고금주조장의 '장보고의꿈 비파20'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보고의꿈 비파20'은 완도산 쌀과 직접 띄운 자가누룩, 계절인 5~6월 수확한 완도 특산물 비파를 활용해 빚은 약주다. 여름철에도 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발효주에 증류주를 더해 만든



연의 풍미를 살렸으며 비파 특유의 은은한 향과 달콤하면서도 산뜻한 맛이 어우러져 깔끔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비파에서 우려낸 깊고 풍부한 향미는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풍미를 지니 온타리아나 하이볼 형태로도 즐기기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품의 품질도 각종 품평회를 통해 인정받았다. '장보고의꿈 비파20'은 2025 남도 우리술 품평회 약·청주 부문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약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채용 면접·노동관계법·직장 내 괴롭힘 등

## 농협 광주본부, 인사·노동 담당자 실무교육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농협협 인사·노동 담당자와 경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근로관계법 및 직원 채용 면접 실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채용 면접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본부 인사 담당

실무자와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15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3개 과정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채용 동향과 면접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원칙, 개별 근로관계법 주요 내용,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방안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노동관계법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홍 기자 photo25@

## 가루쌀·우리밀 활용 가공식품 창업 지원 확대

### 시 농업기술센터, 시제품 6종 공개...내달 레시피 표준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시제품 개발을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광산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 시제품 개발 및 표준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가루쌀과 우리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개발한 시제품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식품 전문가와 예비창업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시제품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제품 경쟁력과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시제품 개발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전략 작물인 가루쌀과 지역 대표 농산물인 우리밀을 활용해 지역 농

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예비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공 품목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개된 시제품은 애호박 고로케, 구황작물 치아바타, 수박 식빵, 마늘칩 샌드위치, 옥수수 터트트, 속키스테라 등 모두 6종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면서도 소비자의 입맛과 최근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해 상품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리법을 보완하고 맛과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레시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레시피 개발을 완료한 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해 실제 창업 현장에서 활



농협 광주본부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시제품 개발을 위해 '지역 농산물 활용 시제품 개발 및 표준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가루쌀과 우리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개발한 시제품을 공개했다.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사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제품은 지역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개발했다"며 "레시피 표준화와 기술이전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광주 로컬푸드 창업기업 전국서 두각

### 나주 '시도시도'·광주 '오롯이' 농식품부 경진대회 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컬푸드 창업기업이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 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분야)'에서 나주의 '시도시도'와 광주의 '오롯이'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8개 기업이 참가해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기업 2곳이 이름을 올리며 통합특별시 로컬푸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의 '오롯이'는 장성 사과와 나주 케일·시금치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착즙 주스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의 '시도시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가루쌀을 활용한 단백질 크림 쌀소금빵을 개발해 차별화된 상품성과 시장성을 인정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선정 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빌화 확산 사업'을 통해 재료 구입비를 비롯해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장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된 깊고 넓은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 더 의미가 크다"며 "전남의 우수한 농산물과 광주의 청년 창업 아이디어가 결합해 더 큰 경쟁력을 갖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